

몸
다루기

선화(仙畵)란 무엇인가?

| 강영기 |



강영기 선생은 97년 지금까지 1/2월호에 '초월의 회전이 인류에 거는 마지막 기대'라는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대 경영학 석사로 84년 무역회사를 창업하여 수백억 대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단전호흡과 기수련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차 간 리비아 열사의 한가운데서 황홀체험을 하게 됩니다. 94년 당시 리비아는 오후 2시만 되면 모든 업무가 끝나는 나라였으며, 술도 무엇도 없는 곳이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기수련 동작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94.3.25) 불기운이 손과 온몸을 휘감는 느낌을 받으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약 5~10분간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는데 그때의 기분은 황홀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 수액의 흐름을 관찰하고 뿌리의 기운을 보았으며, 인체 안으로 들어가 기관과 세포를 구경하였고, 천체로 나아가 태양과 지구,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이는 기운을 보게 되었고, 우주의 구성 기초성분인 피라미트 형태의 황금빛 알갱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이분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지 못한 영적인 질병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을 팔지 말고 실천하라'는 류의 메시지가 자동기술(自動記述)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메시지를 널리 전하도록 권한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일과 수련을 계속해오다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수련에 정진 중이며, 동시에 선화를 통해 자신이 얻은 기운과 방법을 널리 전하고 싶어 선화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17쪽 참조) - 편집자 주

선화(仙畵)는 생각과 마음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상상하고 그 실체의 모습들을 찾아 들어가는 그림이다. 예를 들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도는 이유와 모습,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도는 모습, 우리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를 돌아가는 모양과 생김새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야구공이 날아갈 때 포물선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리는 어떤 것일까. 물리학자가 아니라도 천체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번씩 의문을 가져 볼만한 상상거리가 아닌가.

빛과 중력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잡아당겨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의 공간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가? 그 중력이라는 친구는 어떤 조화술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라는 존재는 무슨 능력을 타고났기에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가!

혹시 우리 모두는 닳아있지 않을까. 닳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은 없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 볼 수는 없을까. 공기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바람을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모두에게 신비함이 크지만 나에게 가장 가상하게 보이는 것은 겨울나무들이다. 겨울을 이겨내는 어린 가지들은 무슨 방법으로 옷도 없이 저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하여 봄눈이 녹을 즈음 다시 새순을 틔우는 그 은밀한 조화술은 누구로부터 학습을 받아서일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단순히 신의 조화, 하늘의 섭리 등으로 지나쳐 버리고 말아야 하는가. 그분들의 조화로운 모습과 변화무쌍함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생명체의 내부의 모습을 나타내어 밖을 쳐다보듯 안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겨내려는 그 몸부림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바위는 정말 생명이 없는가. 모래와 자갈흙은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 아니면 숨쉬지 않고 있을까. 만약 숨도 쉬지 않는 그들이라면 어떻게 저 수많은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며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태어날 때 씨앗을 뚫고 나오는 움직임을 한 장의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까. 그리고 자라는 모습을 한 장에 그 모습을 담아 볼 수는 없을까. 다 자란 후에는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그전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없는 것인가.

사람 이외의 동물과 식물, 곤충 그리고 무생물들은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살까. 그들은 충분히 언어 전달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못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속삭임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길은 없는 것일까.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는가.

은행나무가 4km나 떨어진 암, 수끼리 서로의 사랑을 전달하는 마력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은행알을 결실하는가. 신비하지 않는가. 이들의 속삭임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종이 위에서도 그들의 대화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많은 성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맥동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가셨기에 이토록 인류의 가슴속에 파고들어 있는 것일까. 그분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메아리치듯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인의 가슴속에 숨쉬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수많은 현자, 성현들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그리하여 그 그림을 통해서 쉽게 그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분들을 보내거나 길러주신 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분들로 교육시켜 주셨을까.

선화를 그려보면 그것을 알게 된다.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인연으로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림으로 가르쳐준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 먹을 것이 모자라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이웃을 내 몸, 내가 족처럼 돌보는 성자를 자기의 친구로 사귀게 되고, 그런 친구와 오래 사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실천하는 사랑의 힘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리게 된 것이 선화이다.

선화는 어떻게 그리는가?

먼저 100장을 넘게 그려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 기운이 흘러, 터져나오는 이 그림들은 낙서하듯이 그리는데, 그림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읽어내감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숙달되게 계속 연습을 하면, 머나먼 우주에서부터 작게는 나무뿌리까지 만상의 기운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언어적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소통과 깨우침의 방법이었다면 선화는 좀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깨우침이 오는 무언의 그림을 통해 나아가는 방법이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줄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릴 수 있으며, 그렇게 내 마음을 그리는 것이 우주의 본체를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운이 느껴져 손으로 터져나오게 되면 이제, 바위를 생각하면 바위의 기운이 그려져 나오고, 은하를 생각하면 은하의 기운이 그려져 나온다. 이때 나도 어느 존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며, 만물과 하나됨을 통찰하게 된다. 모든 사물이 나와 같은 흐름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이때 생명에 대한 외경심도 생기고, 이 우주의 큰 모습을 알게 되며, 보잘 것 없는 풀 속에서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모습이 우주와 닮아있으며, 다시 쳐다보니 내 마음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많은 경전 중 반야심경의 핵은 공불이색, 색불이공임을 터득하게 된다.

선화 공부에서 일단 기운이 터져나오는 것은 집중할 경우 34시간이면 된다

기운이 있다해도 연필을 잡고 그리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마치 천둥벼락을 칠 때 그 전기가 접지되어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붓을 종이에 대지 않고 댔듯 말듯 하며 오래 있으면 점차로 기운이 종이위에 붓을

언어적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소통과 깨우침의 방법이었다면
선화는 좀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깨우침이 오는
무언의 그림을 통해 나아가는 방법이다.

대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

어떨 때는 뜨거운 기운, 차가운 기운이 오고 때로는 선선한 기운이 오기도 하는데 그림의 선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치 음악과 같다.

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로는 알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나쁜 기운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알게 된다.

선화는 기분이 너무 떠있을 때 가라앉혀주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았을 때 기운을 북돋워주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대략의 과정을 요약하면 ;

1. 조용한 상태, 명상상태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진입되면
2. 숫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하는 인류, 둥글다고 생각하는 인류, 공전, 자전한다고 생각하는 지구의 인류, 태양계 속에 있다는 인류 등등은 각각 그 의식의 차원이 다르다. 그와 같이 숫자도 1에서 경까지만 아는 것과 수의 무량대수까지 가는 의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무량대수까지 구체적으로 확대되면 의식이 확장된다. 이렇게 숫자를 통해 의식을 확장시켜준 뒤, 내 꿈의 무대를 숫자를 통해 확장시켜준다.
3. 수의 세계를 팽창시켜놓고 시간과 공간을 개입시킨다. 시공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4. 그 모든 것이 한 선상에서 공전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1억



광년 전의 빛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는데 그 비전의 세계로 들어간다.: 기운의 몰입상태를 통해 들어간다. 이때 의식확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게 된다.-시공의 개념속으로 의식여행을 하게 된다.


5. 이 확장을 집중해서, 모든 것이 한 기운에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바깥기운과 안기운이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만 주로 느꼈다. 육신육신 하는 그 느낌이 그것인데, 이제 평상시에 밖의 기운과 안기운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6. 무생물(바위)에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 기운을 느껴 그려본다.
7. 생물(소나무)의 기운을 연결시켜 그려본다.-다 그려진다. 그 기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그림은 밖을 그려봤지만, 이제는 꽃을 그리되 꽃의 내부를 그려보자. 움터나오기 전의 싹을 그려보자.
8. 동물을 그려본다.
9. 자기(自己)를 그려본다.-자기 마음을 그려본다.-내가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명예를 위해, 사치한 마음에 봉사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도 있고, 왜 나는 잘 못 살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 그림을 그려보니 아, 나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적이 없고, 내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선화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10. 선화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혹은 볼 수 없는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준다.
11. 선화는 자신의 전생과 현생, 미래예측 그리고 내생의 모습까지도 보여준다고 한다.
12. 선화는 때론 우리의 고달픈 인생살이에 기적이라는 선물을 그림으로 가져다주는 역할도 한다.
 - ㄱ. 현재의 삶 속에 얽혀있는 실타레를 풀어주며,

- 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치유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 다. 천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준다.
- 르. 외계 지성체와의 만남을 주선해준다.
- 미. 물질로는 행복의 궁극을 추구하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해주며, 그림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인생관과 폭넓은 세계관을 갖게 해준다.

13. 선화는 빛과 에너지도 그리고 그들의 흐름도를 나타내는데 매우 적합하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공상태가 무엇인지, 중력이 무엇인지도 넌지시 가르쳐준다.
14. 선화는 오욕칠정을 모두 표현하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길을 끄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나도 모르게 찾아든 그 욕망의 불길을 승화시켜 새로운 에너지로 화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15. 가시권 밖의 은하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해준다. 그리하여 별들은 어떻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16. 시간과 공간은 어떠한 함수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하는지 가르쳐준다. 때론 시간의 흐름이 빈공간과 부딪치며 빛이 섬광처럼 빛남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 모두가 에너지임을 가르쳐준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